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식, 소통과 통합으로 하나된 날 살기좋은 강화 만들기 위한 ‘박용철의 5가지 약속’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식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식이 4일 오전 10시 강화 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한승희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장기천 대한노인회 강화지회장, 박용렬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장,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와 강화군민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선보인 공연에서는 길상어린이 합창단과 강화군립합창단의 합주곡은 세대를 화합하는 의미 있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진 오프닝 영상에서는 민선 8기 박용철 군정의 비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강화의 희망찬 미래도 엿볼 수 있었다.

박용철 군수는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강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강화군민 모두의 취임식이자, 군민께 약속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라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강화’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군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하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열린 군수실’을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 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둘째, 어르신 버스 무상교통서비스를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청소년 교육문화 클러스터 청사진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의 복지를 강화하겠다.

셋째, 석모도 온천 관광지구 및 해양치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마니산, 화계정원 등 기존 관광시설의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 겠다.

넷째,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 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농·축산·수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

다섯째, 강화~계양 고속도로와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등 대규모 숙원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 부처를 적극 방문하겠다.

아울러, 북한 대남방송과 관련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했다. 앞으로 피해 군민에 대한 피해 지원책 마련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군민의 고통을 해소 하겠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취임식 하이라이트 행사로 민선8기 박용철 군정의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슬로건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로 박 군수가 이 슬로건을 자필로 새기는 퍼포먼스도 진행 됐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민선 제10대 강화군정 비전·방침 확정

박용철 군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더 큰 도약 이끌겠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



군정 비전 방침 확정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민선 10대 군정 비전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로 확정했다.

새로운 군정 비전인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는 군민, 기관,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군의 발전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소통과 화합에는 소통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해 군정에 반영하고, 화합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를 줄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박용철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군정 비전은 군민들이 직접 공모 제안에 참여해 만들었으며, 선호도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군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박용철 군수의 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 나갈 방침이다.

군정 방침은 군민에게 친숙하고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공감행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살맛나는 지역경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도약하는 청년 미래로 정했다. 군은 군정 방향에 맞춰 군정 비전을 실현해 군민의 공감을 얻으며 화합과 결속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며 “군민들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더 큰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소통 강화 당부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으로 대민소통 강화할 것

박용철 강화군수, 보훈단체 간담회 가져

보훈단체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



박용철강화군수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소통 강화 당부

박용철 강화군수가 4일 취임식 후 집무실에서 읍면장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일선 주민소통 창구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거행하고, 강화군의 새 슬로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읍·면장들에게

새 슬로건의 의미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역 내 공공 및 사회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지시했다.

회의에서 박 군수는 “군민과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법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특히 읍면 공직자는 군정의 첫인상인 만큼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군수는 “앞으로 읍면사무소에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군수가 직접 만나 상담할 계획으로 군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2일 강화군 보훈회관 3층 회의실에서 17개 보훈단체 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훈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은 “강화군에서 그간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다”며, “그럼에도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며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훈회관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군수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군은 역대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더욱 앞서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보훈단체 간담회

박용철 강화군수,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현안과제 건의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운영 지원 등 건의



박용철 강화군수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현안과제 건의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 11일 인천시 서구 복지 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된 ‘11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현안과제인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운영 지원과 ▲창리지구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처리에 대해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강화군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건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온수마을’

의 초기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의뢰 중으로 정책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창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市) 하수도기

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앞으로 강화군도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로 공동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강화군의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안사항 협의와 공동발전 방안을 토의하고자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를 순회하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강화군, 공약사업 로드맵 마련...속도감있게 추진 “군민의 염원을 담은 공약사업... 신발 밑창이 닳도록 펼 것”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민선 제10대 강화군정의 공약사업 실행 로드맵을 마련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7일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소통하는 공감행정 ▲함께 누리는 복지 ▲살맛 나는 지역경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도약하는 청년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다”며 “군민의 염원이 담긴 공약사업이 임기 중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제10대 강화군수 주요 공약사업인 ▲군민통합위원회 운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농촌특화지구 도입 ▲무상 교통비(택시) 지원 확대 ▲통합관제센터 신축 등 공약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확정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여 금년 내 군민에게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인천시, 국회 등을 신발 밑창이 닳도록 앞장서 뛰겠다”며, “공약사업이 로드맵에 맞춰 목표한 기한 내에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공약사항 보고회



공약사항 보고회

강화군, 2024년도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조화로운 개발과 보존’ 방안 모색



인허가관계자 간담회



인허가관계자 간담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7일 ‘2024년도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축, 토목, 산림 분야 관내 설계사무소 28명과 해당 분야 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령 개정 사항 ▲개발 행위허가 시 허가 기준 적용사항 ▲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해 허심탄화하게 논의했다.

강화군은 조화로운 개발과 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인허가 관계자 간담

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 대한 매뉴얼 마련,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신속한 업무처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군의 인허가 건수는 수년째 기초 자치단체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제29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농업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8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9회 강화군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29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농업인 한마당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도 수확의 결실을 맺어 강화농업을 지켜주신 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추진!

‘토닥토닥 나를 응원해’



치유농업프로그램 추진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협업해 인지장애 환우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바구니 만들기 ▲숯부작 ▲다육이 정원 ▲쑥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 전후로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을 측정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파악해 볼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식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돌봄으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우 만족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 성황리 마무리

길상·송해·하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문화마당' 성황리 종료 주민 만족도 90%이상... 먼 주민 대상 소규모 문화공연 수요 실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3일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2024년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주민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해 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고, 읍면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퓨전국악밴드 '하나연'의 흥겹

고 신명나는 무대를 시작으로, 강화지역 예술인 '조규선', 트로트의 여왕 '문희옥', 미스터 트롯 출신의 저음 보이스 '류지광', 최고의 가창력 인기가수 '강진'까지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2시간의 공연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공연을 찾은 주민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 지난 6월 19일 길상면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송해면, 11월 13

일 하점면까지 3회를 진행하는 동안 매회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환호로 마련된 모든 객석을 꽉 채우며 성황리에 마쳤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공연을 찾아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평소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면 지역 주민분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길상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하점면

강화군, '강화 원도심 와글와글' 행사 성료

상생 플리마켓, 음악회, 체험이벤트 등 모두가 흥이 나는 행사



와글와글 행사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2일 강화읍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진행된 '강화읍 원도심 와글와글' 활성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와글와글 행사'는 2023년도 첫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았으며, 강화읍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만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 진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70~80년대 대표 가수 장필순, 공일오비, 강화를 소재로 곡을 만들어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후추스와 함께하는 음악회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에게 판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플리마켓,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다양한 체

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뜻하지 않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며 상생 플리마켓에 셀러로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오랜만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올해 2년 차를 맞는 와글와글 행사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의 발판이 되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최

11일~19일 9일간 의사일정 돌입 /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안전 심의



강화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가 지난 11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장애인 기업활

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이다.

12일부터 18일까지는 강화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듣고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강화군 24개 부서 및 2개 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박용철 군수님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며,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강화군의회, 강화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 적극 지지 표명

여·야의원 모두 환영입장 밝혀

강화군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는 지난 1일 강화군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군 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이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위험구역 설정은 강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국회,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화군의회, 강화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 적극 지지표명

‘세상 속으로 GO~, 마법과 풍선의 여행!’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특화사업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분과장 김재정)는 지난 11월 12일 실무분과 특화사업으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생활인과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강화군 체육회의 장소 지원을 받아 다목적 체육관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마술 유튜버 “호구와트”의 매직쇼와 SBS 생활의 달인 최강 우승에 빛나는 풍선 장인 “신용국” 별론 아티스트의 공연으로 70분간 이루어졌으며, 평소 문화공연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분과 사업으로 색다른 여가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분과 김재정 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가 해소되어 장애인 뿐 아니라 지원자, 봉사자 모두 만족하는 공연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마술 유튜버 “호구와트”의 매직쇼, “신용국” 별론 아티스트의 공연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소통위원회 위촉식 함께 가져



강화교육특구 시범지역 발족식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31일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및 소통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강화군과 교육청이 협력해 성공적 운영을 다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강화 교육발전특구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 주실 소통위원 위촉식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승희 강화군의회 부의장,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소통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화중학교 '교육3주체 합창단'의 오프

닝 공연, 축하, 교육발전특구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안내를 통한 개념, 기본방향, 주요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강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특히, 박용철 강화군수와 도성훈 교육감이 서로의 시간을 교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잠시 바꾸어, 서로의 입장에서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소통위원회 위촉식에서는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 박용열 회장을 비롯한 45명을 교육발전특구 소통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교육발전특구가 강화군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더 나아가 교육역사의 도시로서 인천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은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안 논의 및 협력 강화 위한 강화군, 교장 간담회를 통한 교육현장과 소통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7일,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교육지원청 한기선 교육장을 비롯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는 박용철 강화군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강화군의 교육 정책 소개 및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교장선생님들은 강화군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각 학교에서 겪고 있는 교육적 어려움과 개선

이 필요한 사항과 강화군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강화군이 지원하고 있는 '강화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교육경비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여, 강화군의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 등록 센서스 품질 개선, 주택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목적이며,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빈집을 포함한 관내 약 3만 5000가구이며, 주거 형태에 따라 주소, 거처 종류,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로 작성하는 전자조사와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별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한 자료는 내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준비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학교장 간담회

‘복지 사각 ZERO! 행복한 강화’ 강화군,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성황리 성료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체험 등 복지 어울림의 장 마련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26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군민들이 화합하는 복지 어울림의 장’으로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사회보장 유관기관과 군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

려하고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의 32개 사회복지시설·단체, 사회보장 유관기관이 부스를 운영하며 각종 생활 밀접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회복지시설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복

지 사각 없는(복지사각 ZERO!) 행복한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강화 아버지합창단, 태권도 시범공연, 강화여중의 치어리딩 등 다양한 릴레이 공연이 펼쳐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오늘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박람회가 개최되는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소

통하고 통합되는 강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술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되어 기쁘고 사회복지박람회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박람회

강화군,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강화고-강화여고 ‘맞손’



자율형 공립고 공모를 위한 협약식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3일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강화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지역 인재로서 성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규모는 총 20교 내외로, 선정 시 2025년 3월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되며, 교육부로부터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교육청의 예산 지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자공고 2.0 선정 시 교육발전특구 및 운영 중인 교육사업과 연계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학생들의 손에 달려 있기에 이번 협약의 의미가 적지 않다”며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등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강화군 장학관 4개소 운영,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 교육경비 지원, 학교 체육 육성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남산근린공원, 7개 테마경관 조성 '야간 산책 명소' 변신! '은하수(水)가 쏟아지는 밤하늘'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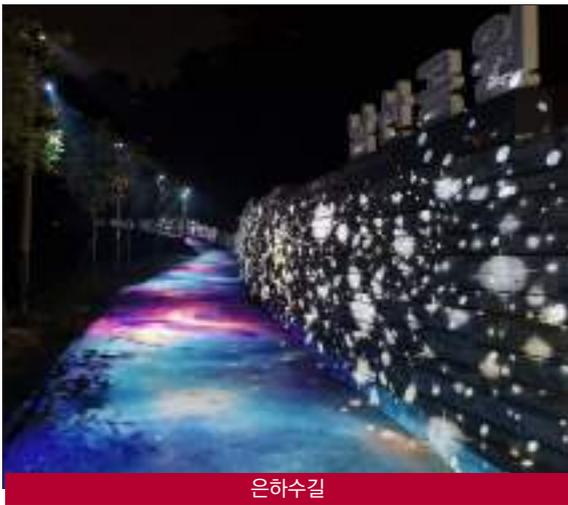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읍 신문리 일원에 위치한 남산근린공원이 기존 조성된 공원에 '은하수(水)가 쏟아지는 밤하늘'을 컨셉으로 7개 테마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성된 7개 테마는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 '건강길' ▲무지개를 걷는 듯한 '무지개다리'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은하수길' ▲낙엽 위를 걷는 느낌을 주는 조명과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꽃 조명이 설치된 '추억길' ▲들꽃잎이 쏟아지는 듯한 '들꽃길' ▲자작나무의 아름다운 수피를 느낄 수 있는 '자작나무 숲길' ▲강화읍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철쭉식재와 달조명, 별조명 등을 설치한 '철쭉동산'을 테마로 했다.

야간 경관조명은 일몰 시부터 21시(저녁9시)까지 운영하며, 기존의 음악분수와 함께 야간 산책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관청근린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청근린공원은 '자연 속 감성공간-아트 관청(Art.GwanCheong)'이란 컨셉으로 2025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군민이 공원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저녁을 함께하는 명품 공원, 밤에 더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하수길



철쭉동산



추억길(야간)

강화군, 강화향교 2024년 기로연 개최 강화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자리 마련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7일 강화읍에 위치한 명진컨벤션뷰페에서 '2024년 강화향교 기로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향교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위원장 직무대리,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범 인천광역시향교재단 이사장, 서승진 인천향교전교협의회장과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통문화에 공헌한 바가 높은 조한구 어르신에게 강화군수상을 수여했으며, 박용철 강화군수와 한승희 강화군의회위원장 직무대리 등의 축하

가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고령의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베푼 잔치를 뜻하며, 현재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연회의 자리로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4일에는 교동향교 기로연을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강화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향교 기로연



강화향교 기로연

역사
기고

병인양요, 하필 강화에서

이경수



정족산성 남문

서양에 맞서다

1863년, 고종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철종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들(고종)이 왕위를 이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종은 아들 다섯에 딸 여섯을 두었습니다. 자식이 모두 11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즉위 당시 고종 나이가 12살. 너무 어려서 아버지 이하응이 사실상의 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종 3년 병인년, 1866년에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병인양요(丙寅洋擾)라고 부릅니다.

“뭘 찾아 먹겠다고 그 먼 프랑스에서 조선까지 쳐들어오고 그랬시까?”

프랑스군이 유럽 땅 프랑스에서 조선으로 온 게 아니고요, 가까운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 프랑스 함대가 주둔하고 있던 겁니다. 중국 즉 청나라가 이미 개항한 상태라 그게 가능했습니다. 몇 년 뒤 신미양요 때 미군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조선으로 옵니다. 그때 일본도 개항을 했거든요.

제국주의 시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점차 다른 나라들로 확산합니다. 산업혁명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손에서 기계로’ 생산수단이 바뀐 겁니다.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더욱 증가합니다.

산업혁명을 이룬 서양 나라들은 자국에서 대량 생산된 물품을 팔고, 물품 만들 원료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잉여 자본을 투자해 더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해외로 나섭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선이 있었기에 원거리 항해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들의 해외 진출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 것이지요. 19세기에 주로 벌어진 이들의 침략 행태를 역사에서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일본 역시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의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의미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요.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청나라는 난징조약(1842)을 맺고 개항합니다. 청나라는 유럽 여러 나라에 영토의 상당 부분을 떼어주면서 반(半)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제국주의 국가 프랑스가 조선을 노리고 쳐들어옵니다. 흥선대원군이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성직자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조선인 신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랑스군이 하필이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 점령당하다

담장처럼 늘어선 구경꾼들 몹시도 흥분하여
잇달아 몰려와 어깨 부대끼며 떠들썩하게 웃네
포가(砲架)가 움직일 땐 놀라 다시 흩어지니
.....

당대 인물인 조면호의 〈서사잡절〉에 나오는 시의 일부입니다.

한강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구경함

니다. 흥분해서 웃고 떠들다가 놀라서 달아났다 가 다시 모여 구경하는 어수룩한 백성들입니다.

뭘 보고 저런 걸까요? 바로 프랑스 군함입니다. 시커먼 연기 내뿜으며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증기선이 무서우면서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난 생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군함이 한양 근처까지 닥치자, 조선군은 배를 일렬로 띄워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군함이 함포를 쏩니다. 천둥소리 같은 포성에 구경꾼들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삼 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놀란 도성 사람들 줄지어 피난을 나섭니다.

강화가 아니고 한양?

프랑스군이 강화로 쳐들어오기 전에 한양 근처까지 일종의 정찰을 나갔던 것입니다. 물길도 살피면서 말입니다. 그때가 1866년(고종 3) 양력 9월이었어요. 프랑스군은 별다른 침략 행위 없이 중국 산둥반도 즈푸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월,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7척 군함에 약 1,500명 병력인데 강화도로 닥친 것은 4척 군함에 900명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큰 배로 염하를 통과하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상대적으로 작은 군함만 동원한 겁니다. 나머지 병력과 군함은 인천 앞바다에 대기.

갑곶에 상륙한 프랑스군이 강화유수부를 차지한 것은 10월 16일(음력 9월 8일)입니다. 병자호란 때인 1637년(인조 15)에 외적에게 함락됐던 강화도가 230년 만에 다시 외적에게 점령된 것입니다. 씁쓸합니다만, 갑곶에서도 강화산성에서도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닥쳐오자, 강화유수부터 도망갔으니까요.

정족산성에 들기까지

프랑스군이 한양이 아닌 강화를 침공한 것은



양헌수 승전비각



병인양요 갑곶전투도(서울 전쟁기념관,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네 병력 규모로 한양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강화를 차지하고 길목을 막으면 조선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입니다.

한양 도성으로 가는 쌀, 소금, 쌀감 등등. 대개 염하를 통해 한강으로 갑니다. 염하를 막고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러면 한양 물가가 폭등하고 백성들의 불만이 터집니다. 전쟁에 대한 원초적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지요. 흥선대원군이 항복하고 개항하게 되리라는 게 프랑스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개항할 뜻이 없습니다. 강화가 점령된 그날, 프랑스군 격퇴를 목표로 순무영이라는 부대를 설치하고 순무사에 이경하, 순무중군에 이용희, 순무천총에 양헌수(梁憲洙, 1816~1888)를 임명합니다.

10월 18일, 양헌수 부대가 김포 문수산 아래 통진도호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11월 8일에 염하를 건너 정족산성으로 들어갑니다. 500여 명 규모입니다. 통진에 도착한 뒤 무려 스무날 만에 겨우 강화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 함대가 염하를 오르락내리락 지키니 건널 수가 없던 겁니다. 그들은 염하뿐 아니라 북쪽 바다 타고 교동 지역으로도 오갔습니다. 해안에 있는 군사 시설과 창고를 불지르면서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양헌수 부대를 강화로 태워다 줄 배가, 없었습니다. 저 위 한강에 넉넉하게 준비돼 있으나, 프랑스 군함이 막고 있어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통진 주민들이 배 5척을 어렵게 구해준 덕분에 염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철쭉 같은 밤에.

프랑스군이 강화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주민들 삶은 무너져내렸습니다. 황해도 땅으로, 주변 섬으로, 그것도 어려우면 남쪽 마을로 피란 갔습니다. 피란 갔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봄부터 피땀으로 키운 벼, 추수하러 오는 겁니다.

프랑스군은 심심풀이하듯, 이집 저집 다니며 부수고, 흠치고, 빼앗고, 불 지르고, 떠나지 못한 사람들 죽이고, 겁탈하고, 그랬습니다. 외규장각 의뢰와 각종 보물도 갑곶으로 옮겼습니다.

한편,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곶에 있던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으로 옵니다. 드디어 벌어지는 전투, 정족산성 전투, 11월 9일, 음력으로 10월 3일입니다.

무기 성능의 현격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대파합니다. 읍내로 퇴각한 프랑스군은 서둘러 집을 꾸립니다. 그 등등했던 기세는 이제 없습니다. 정족산성 전투 이틀 뒤인 11월 11일 새벽, 모든 병력이 갑곶에서 배를 타고 황망히 떠납니다. 그렇게 병인양요가 끝났습니다. 양헌수가 병인양요를 끝내버렸습니다.

양헌수 장군 동상이 정족산성 아래 길상초등학교 교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없어졌습니다. 아쉽습니다. 한국사는 물론이고 우리 강화의 역사에서도 양헌수 장군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재연 장군은 총렬사에 모시고, 별도의 사당 총장사를 건립하고, 광성보 입구에 멋진 동상도 세우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도 올리고 그러는데 말이죠. 만약에 양헌수 장군이 이순신 장군처럼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마지막 순간에 전사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신앙과 나라

프랑스 군함들은 조선 사람들도 겁내는 손들목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염하 물길을 아는 조선인 몇이 그들의 배에 타고 안내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정족산성에 양헌수 부대가 들어간 것을 프랑스군에게 바로 알린 것도 조선인 신자였습니다.

병인박해 때 대원군은 조선에 있던 프랑스 신부 12명 가운데 9명을 처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달아나 목숨을 구했어. 리델, 페롱, 칼레 신부입니다. 이 가운데 리델 신부가 청나라로 피해 가서 그곳에 주둔한 프랑스극동함대사령관에게 보복을 요청합니다. 리델은 함께 갔던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프랑스 군함을 타고 다시 조선에 왔습니다.

리델과 비교되는 신부가 있어요. 병인박해 때 죽임을 당한 베르뇌 신부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황제에게 조선에서 신앙의



양헌수 초상[강화역사박물관]

자유를 얻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어떨까요?”

베르뇌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서양 군인들의 개입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조선에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업신여길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함들이 와서 처신을 잘못하면 그 스캔들은 박해보다도 천 배나 더 해로울 것입니다”

1997년, 양도면에 있는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단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한 단락을 옮깁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의 의도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프랑스 함대를 요청하고 협력한 조선 천주교 신자들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불행을 초래했다. 강화 도민과 민족에게 병인양요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데 대해 천주교인으로서 깊은 사과를 표한다.

기고

기괴한 소리내는 북한의 대남방송... 하루빨리 강화도 주민위한 대책을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도 북쪽 지역 주민들은 거의 매일밤 북한의 대남방송에 시달리고 있다. 낮에는 조용하다 밤에만 틀어대는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은 조잡하기 그지없다. 북한의 공산주의 찬양이나, 남한의 체제와 정권을 비방했던 이전과는 다르다. 주민들은 북한이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물건이 끌리거나 음산한 바람소리 등 아주 기분나쁜 소리들을 한밤중에 내보낸다고 했다. 주민들은 한밤중에 이 같은 소리를 들으면 매우 오싹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는 북과 맞닿아있는 남측 접경지대 주민들에게 일종의 공포감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녘 땅이 한눈에 보이는 접경지인 강화도와 강화군민들이 또 다시 위협에 빠져들고 있다. 강화군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울만큼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 자국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주민들은 대남 방송 소음과 긴장 고조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

다. 특히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해 강화군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의 원천 차단을 건의해왔다. 그럼에도 강화도 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한 탈북민단체가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 수백개를 바다에 방류하려다 당국에 의해 제지됐으며, 3일에는 한 신원불명인이 석모대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쌀을 담은 1.8L짜리 생수병 120여개를 보내려다 적발됐다.

강화 주민들의 불편을 보다못한 강화군이 정부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했다. 강화군은 강화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2024년 11월부터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대남 확산기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위험구역 설정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10월 당선 직후 해병대 2사단과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음창 설치 등 소음 최소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가축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역학조사 실시 및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조해 소음 상쇄를 위한 맞대응 방송과 소음도 정밀 측정 등도 실시했다.

박군수는 지난 4일 취임식에서도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강화군의회도 강화군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국회,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방송 대책은 강화군만이 나서서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도 중앙정부에 강화도의 피해 상황을 적극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강화도는 6.25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채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더 이상 강화군민들이 남북 대치의 직격탄을 맞아서서는 안된다. 우선은 당장 강화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만이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군행복센터, 멋지고 달콤한 가을 특강 성료 가을 메이크업부터 제철 디저트 만들기까지 다양한 경험 제공



강화군행복센터, 멋지고 달콤한 가을 특강 성료(가을 메이크업)



강화군행복센터, 멋지고 달콤한 가을 특강 성료(제철 디저트 만들기)

강화군행복센터에서 지난 10월 17일~11월 13일까지 진행한 가을 특강 시리즈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한 달간의 여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특강은 1탄 ‘행복센터와 함께하는 멋진 가을’과 2탄 ‘행복센터와 함께하는 맛있는 가을’로 나눠 진행됐다.

1탄 ‘행복센터와 함께하는 멋진 가을’은 천아트 기법을 활용한 가을꽃 그림으로 나만의 스카프를 만들어 보는 ‘천아트 스카프 만들기’와 자신에게 어울리는 러블리 계절 메이크업을 배우는 ‘가을 메이크업’ 시간으로 구성됐다.

가을 느낌을 물씬 담은 색채에 빠진 수강생들은 “나한테 꼭 맞는 맞춤형

메이크업과 분위기 있는 스카프로 이번 가을엔 더욱 아름다워질 것 같다”고 만족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2탄 ‘행복센터와 함께하는 맛있는 가을’은 다양한 가을 제철 재료를 활용해 전통 한식 디저트와 달콤한 양식 디저트를 만드는 ‘가을 맛 듬뿍 달콤 디저트’ 시간으로 마련됐다.

한식 디저트로선 꽃감·밤·대추 등 가을 대표 재료들로 꽃감호두말이와 울란, 대추찰떡과이를 만들었으며, 양식 디저트는 사과를 이용한 애플파이와 단호박을 이용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며 깊어진 가을의 맛과 정취를 느껴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강화군 새마을회, 매콤, 달콤 고추장으로 사랑의 온정 나눠



새마을 고추장 나눔행사



새마을 고추장 나눔행사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13일 읍·면 남녀 새마을회장과 임원들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전통재래방식으로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정성을 담아 만든 고추장은 관내 독거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80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조인술 회장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담아 고추장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화군 새마을회가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늘 어려운 이웃을 걱정하고 지역사회봉사에 열정을 다하는 새마을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마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는 매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여름김치 나누기, 보금자리사업, 연탄나누기 행사 등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김장나눔 진행



다문화가족과 김장담그기 행사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는 15일 강화섬김치에서 다문화주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과 다문화 주부 50

여 명이 참여해 김장을 함께하고, 한식 만들기 체험도 하며 서로 간 정을 나누었다. 함께 담근 김장 김치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200가구에 전달했다.

임인관 회장은 “매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있다.”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해마다 김장 봉사에 나서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는 매년 김장철만 되면 회원들이 정성스레 김장 김치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 실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 실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은 지난 31일 송해면과 양사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 이사장 등 직원 20여 명이 연탄배달에 직접 참여해 동절기 대비 생활이 어려운 7가구에 총 1,800장을 전달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탄을 받은 한 주민은 “몇 해 전에도 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다 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는데 꾸준함을 잃지 않고 이번에도 찾아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곳곳의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송왕근 이사장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더욱 지치고 힘든 시기에 임직원들의 작은 선행으로 우리 이웃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전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화지구협의회, 백미 나눔활동 펼쳐 취약계층 305세대 백미 지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백미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화지구협의회(회장 고향숙)은 지난 11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인천적십자사는 NH투자증권에서 백미 2,000포를 기부받아 인천시 전체에 지원했다. 이중 강화군은 305포를 지원 받았으며,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포함한 읍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화지구협의회는 지속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매달 105세대를 방문하여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희망풍차 결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구호활동, 사랑의 김장 김치, 혹서기·혹한기 기후 취약계층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 등 다양한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초겨울, 건강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사진 및 카드 출처 - 질병관리청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이나 보온
(옷, 난방)이 적절
하지 않은 노인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직업자 등)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동상 위험군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직업자 등)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따뜻한 장소로 이동
하세요.



젖은 옷을 모두 제거
하세요.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신체활동이 적어지는 겨울은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 적절한 실내습도 유지하기

실내 습도는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습도가 낮으면 코 점막이 건조해지고, 먼지나 세균·바이러스 등을 잘 내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조한 공기에는 바이러스가 오래 떠다닐 수 있어서 전파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50~60% 유지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가슴기 등으로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하루에 1.5L 이상 물을 마셔서 몸 속의 수분을 충분하게 유지해주세요.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냉수보다는 따뜻한 물이 체온을 바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 30초 이상 손씻기

손씻기는 겨울철 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을 21%까지 감소시키고, 기타 감염질환도 약 50~70%를 예방해줍니다. 손씻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질병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낮이 짧아져 햇빛의 양이 줄어들기에 비타민D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두는 것은 필수겠죠? 모쪼록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강화에도 김포에도 삼성인쇄광고기획이 함께 합니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달력
상패
배너
행사
팩스
제본
인쇄
전산
책

봉투
수첩
명패
깃발
홍보
스캔
무선
복사
용지
전문

스티커
전단지
쇼핑백
현수막
기념품
포스터
스프링
초대장
NCR지
출판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 디자인 전문

강화점

SS 삼성인쇄광고기획

김포통진점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3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 031)988-9225 / 010-9755-6844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4
(스타벅스 1분거리)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